

• 보도일 : 2021년 8월 10일(화)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문의처 : 스마트진단기술처 김영남 팀장(055-751-9511), 주세영 대리(9849)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건강검진, ‘기업진단 받으세요’

- 중진공, 전문가의 기업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사업 연계 지원 -
- 진단참여기업 매출증가율 12.7%, 고용창출 2.02명 등 성과 우수 -

충북 소재 A기업은 `18년부터 6번의 기업진단에 참여했다. A기업은 기업진단과 연계지원을 통해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확보 및 인력관리 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 투자비용은 정책자금으로, 인력관리는 기업인력애로센터 취업 매칭과 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어려움을 해결했다. 진단 이후 매출액은 `17년 80억원에서 `18년 100억원, `19년 289억원, `20년에는 58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진단에 참여한 `18년부터 2년 간 매출이 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고용 규모도 매년 늘어 `16년 5명이던 직원 수는 `19년 86명에 이어 `21년 7월 현재는 114명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기업의 혁신 성장과 부실예방을 위해 기업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사업을 연계하는 기업진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8월 10일(화) 밝혔다.

기업진단은 업종별 전문가가 기업의 애로사항과 강·약점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애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 맞춤 연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기업진단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인 진단과정에서는 경영기술 전문가가 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외부 경영환경과 핵심역량과 경영성과 등 내부 역량을 진단한다.

2단계 해법제시과정에서는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영목표 재설정, 개선 로드맵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과 성장 솔루션을 수립해 제공한다. 3단계는 정책연계지원으로 기업 상황을 고려해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연수 등 중진공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맞춤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진단에 참여한 4,152개사의 매출증가율을 보면 '19년 대비 평균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참여기업의 매출증가율인 9.21% 대비 3.49%p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고용창출에서도 '20년 기준으로 진단기업은 2.02명으로 나타나 미참여기업의 고용창출분인 1.14명 대비 0.88명 많았다.

중진공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진단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현재까지 4,319개사를 지원했다. 비대면 진단은 기업이 기업현황 및 성과 정보를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동향 및 강약점 분석, 동종업계 대비 성과수준 비교 등 다양한 분석결과를 자동으로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표준솔루션도 제공해준다. 비대면 진단은 홈페이지(kdoctor.kosmes.or.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기업진단은 현재의 경영상황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필요한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일종의 건강검진” 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함께해온 중진공이 중소기업의 건강한 기업경영을 위한 주치의가 되겠다.” 고 전했다.

기업진단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에서 상시모집한다. 세부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스마트진단기술처 (☎055-751-9849 또는 9842)로 하면 된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김영남 팀장(☎ 055-751-9511), 주세영 대리(98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